

<워킹워드바이블>은 성경말씀을 보다 영적으로 이해하고 주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번 읽으면서 말씀의 주제와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11

[계 2: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 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계 2: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계 2:3]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계 2: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 2: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 2: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계 2: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 2:8]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 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계 2: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계 2:10]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 2: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 당신을 향한 계획을 살펴보세요.

만남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본문 말씀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분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해 보세요...

본문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세상 나라의 모습을 분별해서 적어 보세요.

인식

말씀을 통해 드러난 나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당신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 모습을 적어보세요.

적용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요?

본문 말씀 가운데 당신의 삶에 실천에 옮기고 싶은 깨달음이 있다면 이곳에 적어 보세요.

기도

본문의 말씀을 기도문으로 바꿔보세요...

본문 중에서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은 구절을 기도문으로 바꾸시고 그 기도문을 <간구-선포-감사>기도로 드려 보세요.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진리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반원들과 함께 깨달은 것들을 서로 나눠봅시다.

1.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 버리고 그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을 때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맺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돌이켜 회개치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복을 거두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맺은 첫사랑을 잃어버려 도무지 주님의 사랑에 대해 느끼지 못하며 이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음으로 인해 주님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5절)

▶ (그룹제안) 왜 에베소교회는 주님께 경고를 받았습니까? 당신은 주님과 맺은 첫사랑을 얼마만큼 유지하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주님과 맺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환난과 궁핍 중에 있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까? (9절)

▶ (그룹제안) 왜 주님은 환난과 궁핍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신은 지금 환난과 궁핍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궁핍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왜 당신은 부유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당신은 궁핍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배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영적으로 배워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찾을 때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계 2: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 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계 2: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계 2:3]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전파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일곱 교회'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교회'만을 의미하기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뜻하며, 특별히 그중에서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에베소 교회'는 실질적인 에베소 교회를 의미하기보다 에베소 교회와 같은 성향을 가진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

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실제로 그 시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말씀임을 알 수 있지만,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2절). 여기서 '수고'에 쓰인 단어는 <코포스>로, 이는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노동을 수반한 '수고'를 뜻합니다. 또한 '인내'에 쓰인 <휘포모네>는 '아래'라는 뜻의 <휘포>와 '머물다'라는 뜻의 <메노>가 합쳐진 말로, 어떤 어려움에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의지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또한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악한 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부인하는 자들이며, 주님과 맺은 첫사랑을 버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내에서 공공연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첫사랑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떠들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 주님과의 첫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고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약화되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러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교회 내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켰습니다. '악한 자'들은 스스로를 '사도'라 칭하며 주님과 맺은 언약을 소홀히 여기게 했기에 그 죄악이 더욱 컸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이 허구임을 드러냈고,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고난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점을 높이 칭찬하셨습니다.

[계 2: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 2: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날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은 사람은 매우 훌륭하다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거짓 가르침을 막아내는 인내와 수고는 참으로 귀감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과 맺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4절). 여기서 ‘버렸다’는 단어 <아피에미>는 부정 과거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짐승을 쫓아내듯 내보내거나, 화살을 멀리 쏘아 버려두는 듯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인내가 아무리 특출했어도,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죄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과의 사랑이 처음과 같지 않다면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헌신도 주님과의 첫사랑 자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헌신보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5절)고 명하셨습니다.

‘생각하다’는 말 <므네모뉴에>는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언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끊임없이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가지라’는 헬라어 <포이에오>는 ‘만들다’,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단어를 부정 과거 능동태 명령형으로 사용하시며 “지금 당장 행하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

다.

[계 2: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칭찬하신 이유는 주님께서도 그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니골라 당은 에베소와 버가모 지역에 존재했던 이단 분파로, 육체의 정욕을 자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처럼 물질과 육체는 악하고 영만 선하다고 믿었기에, 육체의 죄악된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며 행함 없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약 2: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한 '니골라 당'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여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주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이 예수님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교묘하게 '하나님' 혹은 다른 존재를 채워 넣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고후 4:4]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계 2: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곧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 각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십니다. 만약 특정 지도자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달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약속하

셨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주님과 맺은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과 계명을 사수하는 자를 뜻합니다.

"[계 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러한 승리자는 천국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서 친히 거하시며,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영원히 우리를 소성케 할 것입니다.

"[계 21:22]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계 22:1]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 2:8]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
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계 2: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주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
다가 살아나신 이..."(8절)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곳
에 언급된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는 말은 <호스에
게네토 네크로스 카이 에제센>으로, 두 개의 부정 과
거 시제가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는 이미 역사적으
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과 부활하신 일은 실제로 일어
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죽었다
가 살아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신 것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환난 중에서 오히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위로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네 환난과 궁
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9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서머나 성도들이 환난을 받아
생활에 궁핍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곳에 쓰인 '
환난'은 <들립시스>로서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러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한 '궁핍'에 쓰

인 단어 <프토케이아>는 외적 핍박으로 생긴 물질적인 빈곤을 뜻합니다.

이러한 서머나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은 유대인으로 부터 온 것입니다. 그 당시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속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일찍이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매우 핍박하였으며 그들의 핍박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심히 환난을 겪었고 그로 인해 가난과 빈곤을 면치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서머나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함이 단지 유대인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 의한 것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회중으로 함께 당을 지어서 기독교인을 핍박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를 가리켜 '사탄의 회'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당을 지어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주님은 '사탄'의 활동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이러한 '사탄의 회'에 의해 환난과 궁핍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탄

은 그 지역 사회의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을 꾀하여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불교인'이 될 수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힌두교인'이나 '이슬람교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지역에 오래전에 자리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새로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방해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계 2:10]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찌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주님은 서머나 성도들에게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10절)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서머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지극히 짧은 것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말은 지극히 짧은 기간임을 말할 때 사용되는 셈어적인 표현입니다. 비록 서머나 성도들이 마귀가 주는 고난을 받아 환난

과 궁핍함을 당하겠으나 그 시련의 기간은 지극히 짧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잘 극복하고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원어는 <기누 피스토스 아크리 다나투>입니다. 여기서 '~하라'라는 명령어로 사용된 <기누>는 <기노마이> 동사 원형에서 나온 명령어로서 중간태(Middle Voice)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충성하는 것 자체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대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맹종하는 것은 중간태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도 그것을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간태의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드러납니다. 누군가와 결혼을 할 때에 내가 결정해서 하는 결혼이지만 마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결혼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사실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에도 중간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마치 하나님의 이끌리심으로 행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중간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중간태 인생입니다. 밥을 먹어도 나를 위해 먹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먹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에는 나의 의지도 있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에는 중간태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성도들에게 하신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순종에 의해 중간태로 변화됩니다. 내가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중간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과 함께 의지적으로 주님께 순종해서 나아갈 때 아름다운 중간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계 2: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 하리라"(11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방해에 굴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궁핍함 중에서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은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첫째 사망'을 면치 못합니다. 이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 '지옥'에 거하게 되지만,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에베소는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역 중심지로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라오디게아를 경유하여 에베소까지 동방의 많은 산물들이 집결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역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테미(Artemis) 여신상이 있어 이곳은 미신이 매우 성행했으며 황제 숭배가 행해지던 매우 부도덕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은 도시인데 '스트라테고이'(Strategoi)라는 독자적 행정관이 있었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통치 기관으로서 '불레'(Boule)라는 민회관과 순회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버가모'가 소아시아의 명목상 수도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에베소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동안 머무르며 목회를 하였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 기독교 선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교회

교회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왜 저들을 책망하셨나?	주님께서 어떤 경고를 하셨나?	이기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은?
에베소교회 (계 2:1-7)	오른손에 일곱별을 쥐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분	저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시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드러낸 것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주님과 맺은 첫 사랑을 버린 것	첫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서머나교회 (계 2:8-11)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없음	없음	환난과 고난 중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며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되리라
버가모교회 (계 2:12-17)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	사단의 방해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 주님의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켜 우상을 섬기고 행음의 삶을 사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감추었던 만니를 주고 흰 돌을 주어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두아디라교회 (계 2:18-29)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	주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 많아진 것	이세벨을 용납하여 행음의 삶을 살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녀를 죽이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권세를 주리라
사데교회 (계 3:1-6)	일곱영과 일곱별을 가지신 분	저들 중 몇 명은 흰 옷을 입어 더럽히지 않는 자가 있는 것	저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여 살아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	복음을 받아 들였던 때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이르리라	흰 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며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 앞에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교회 (계 3:7-13)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것	없음	끝까지 나의 말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새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너 위에 기록하리라
라오디게아교회 (계 3:14-22)	아멘 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없음	저들의 행위가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한 것	열심으로 회개하여 불로 연단한 금으로 흰 옷을 사입어 수치를 면하고 안약을 사서 보라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왕으로 통치하리라